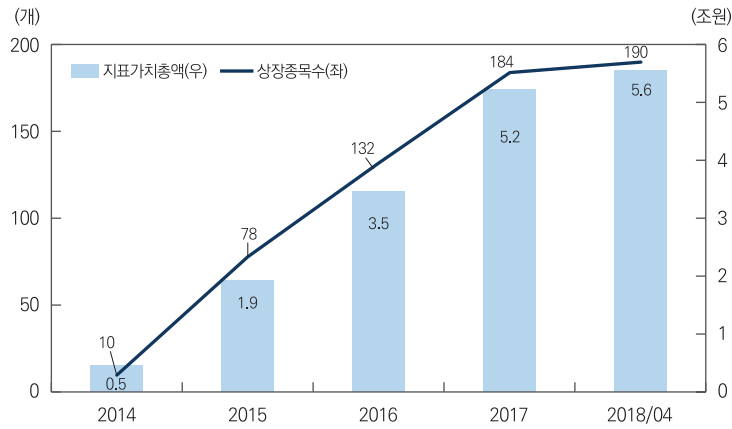


국내 ETN 시장의 현황 및 시사점

- 2014년 11월 개설된 상장지수증권(Exchange Traded Note, 이하 ETN) 시장은 원자재 ETN·손실제한형 ETN·VIX ETN 등으로 상품을 다양화하며 안정적으로 성장중
 - ETN 시장은 유동성공급자(LP) 거래비중이 매우 크고, 외국인 거래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해외형 상품 비중이 전체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여 글로벌 자산배분 수단으로 적절히 기능
 - 그간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, 인지도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 개선, 투자자 및 발행회사 확대 등이 긴요
-
- 2014년 11월 개설된 상장지수증권(Exchange Traded Note, 이하 ETN) 시장은 원자재 ETN·손실제한형 ETN·VIX ETN 등으로 상품을 다양화하며 안정적으로 성장중
 - ETN은 발행자(증권회사)¹⁾가 사전에 결정한 기초자산에 연동하는 수익을 만기에 지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됨
 - 중위험·중수익을 추구하는 ELS/DLS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환금성 제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거래소에 상장하여 매매할 수 있는 ETN을 도입
 - '15년 인버스·바스켓지수 ETN, '16년 레버리지 ETN, '17년 손실제한 ETN 등 상품의 다양화 진행
 - 2018년 5월 9일, 주식시장 변동성에 투자하는 국내 최초의 변동성 상장지수상품(ETP)인 VIX(CBOE Volatility Index)선물 ETN 상장
 - VIX 상품의 고위험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였고, 주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음
 - 2018년 5월 30일, 미국달러선물 중 최근월물 일간수익률을 대상으로 한 미국달러 선물 ETN 상장
 - 정방향 및 역방향(-2X) 상품을 동시에 상장함으로써 달러가치 방향성에 대한 투자 가능
 - 2018년 5월말 기준 ETN 시장의 상장종목은 193개, 지표가치총액은 5.7조원
 - 상장종목수(개) : '14년(10) → '15년(78) → '16년(132) → '17년(184)
 - 지표가치총액(조원) : '14년(0.5) → '15년(1.9) → '16년(3.5) → '17년(5.2)

1) ETN 발행사는 총 7개(신한금융투자, 삼성, NH투자, 미래에셋대우, 한국투자, KB, 대신) 증권회사임. 증권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, 기존 발행한 ETN도 상장폐지되므로 발행사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발행사를 제한

ETN시장 규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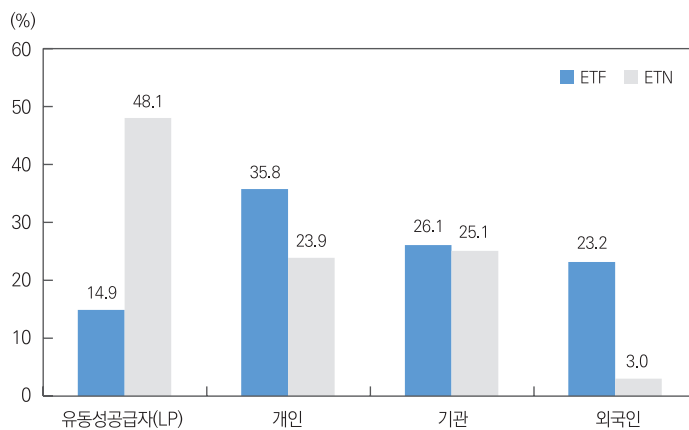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거래소

□ 2018년 4월 ETN 시장의 투자자별 거래비중을 일평균거래대금 기준으로 살펴보면, 유동성공급자(LP)의 거래비중이 전체 거래의 48.1%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거래비중은 시장개설 초기보다 다소 증가하는 추세

- 외국인 거래비중 : '16년(0.6%) → '17년(2.0%) → '18.4월(3.0%)
- ETN과 유사한 상장지수펀드(Exchange Traded Funds, 이하 ETF)와 비교해보면 ETN의 경우 유동성공급자(LP)의 거래비중이 높고 외국인 거래비중은 매우 낮음

투자자별 일평균거래대금 거래비중: ETF vs ETN (2018년 4월 기준)



자료: 한국거래소

□ ETN 시장에서 해외형 상품의 상장종목수 및 일평균거래대금 비중이 국내형과 거의 유사하여 ETN 시장 개설의 목적상 글로벌 자산배분 수단으로 적절히 성장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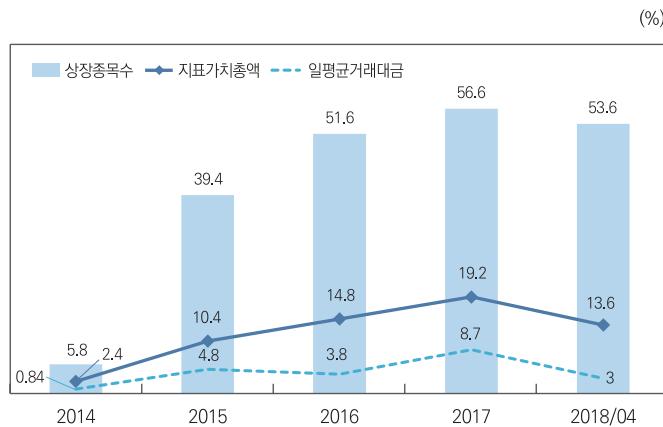
- '18년 4월 기준 ETN 상장종목 190개 중 해외형이 50%(해외형 95개, 국내형 95개)를 차지
 - 일평균거래대금 비중도 해외형 43.3%, 국내형 56.7%로 고르게 분포

- 이를 ETF 시장과 비교하면 동기간 ETF 상장종목은 전체 360개 중 국내형 261개, 해외형 99개로 국내형이 전체 상장종목의 72.5%를 차지
 - 일평균거래대금은 국내형의 비중이 훨씬 커서 국내형 92.8%, 해외형 7.2%로 국내형과 해외형이 고르게 거래되고 있는 ETN과는 차별적임

□ 그러나 2016년 이후 ETN 상장종목수가 ETF 상장종목수의 50%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일평균 거래대금 및 순자산총액대비 지표가치총액 비중은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

- ETF 순자산총액대비 ETN 지표가치총액 비중은 2017년 19.2%까지 증가하였으나 2018년 1/4분기 ETN 시장 침체와 함께 다소 감소
- 일평균거래대금 역시 2018년 들어 감소세를 나타내 '18년 4월에는 3% 수준에 그침

ETF 대비 ETN의 거래규모 비중 추이



자료: 한국거래소

□ 2014년 ETN 시장 개설 이후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, ETN 인지도 상승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 개선, 투자자 및 발행회사 확대 등이 긴급요

-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적절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
- 국내 미도입된 신흥국 시장 대표지수, 글로벌 대표상품, 고레버리지 ETN 등을 대상으로 ELS, ETF 등과 차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상품개발 및 상장 필요
 - 한국거래소는 ETN 구조화상품 개발을 통해 장외 ELS 상품 수요를 장내로 유인하고자 노력중

선임연구원 윤지아